

호남 등 낙후지역 '차등 맞춤형 분권' 정책 펼쳐야

영남·충청권과 동일 기준 적용 땐 '부익부·빈익빈' 심화
비수도권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제도개선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인구·자본의 극한 수도권 집중 속에 논의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로의 국가 주요 기능 이전, 공공기관 이전 시 2 등이 호남권에 대한 새로운 낙후·소외·차별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충청권)을 '수도권화'시키고, 이미 성장 경쟁력을 지닌 지역(영남권)과 호남권을 동일 선상에 두고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섯 차례에 걸쳐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기사 3면>

<1> 진정한 국가 재정 분배

해방 이후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대표되는 '경부 라인' 중심의 국가 주도 경제 성장 정책에서 소외된 호남은 인구·자본 유출이 가장 극심한 곳이다. 수도권과 함께 영남권, 충청권의 인구 증가는 대학 진학, 취업 등을 위해 고향을 떠난 호남인들로 인해 가능했다는 의미다. 수도권 등에 인구·자본이 쏠리면서 기반시설이 뒤따르고,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앞다투어 창업·성장하면서 경제력을 갖춰간데 비해 호남권은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성 미흡으로 정부의 기반시설 투자 우선순위, 민간 투자 흐름 등에서 밀려나 쇠락을 거듭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재정분권으로 인해 호남권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초 체력이 크게 부족한 호남권에 있어서 국가 재정마저 줄어들다면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한다는 현 정부가 모순된 국가 재정 분배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비세율 10% 포인트

상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지방이양 등으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2019-2020)가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지역의 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소비세가 8조7187억원이 증가하지만 소비지수가 높은 수도권에 혜택이 돌아가고, 보전 조치 없는 균특회계의 지방이양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를 더 빈곤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 분권을 추진하면서 정작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구 감소지역 등 세입이 열악한 곳은 계속 열악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돼 있어 세수의 불균형 역시 완화하는 좀 더 세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공평한 제공,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축소,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이라는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은 물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0년까지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각 지자체의 재정 영향을 진단한 뒤 그 오류를 개선하고 2단계 재정분권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2단계도 국세·지방세 비율의 단순 조정이 아니라 지방교부세 세율을 인상해 지방 재정을 탄력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지역 간 경제적·재정적 격차라는 현실적 문제를 간과하면서 재정적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한 재정분권 1단계에 철저한 분석과 보완책을 제시해야한다"며 "이러한 조치 없이 2단계를 실시하면 지역 불균형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가 정책적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 대책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확립화된 재정분권이 아닌 차등적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 등 자체 재원이 충분한 지자체와 정반대의 지자체를

광주 챔피언스 필드 관중 입장 ... 진짜 야구가 시작됐다



4일 오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펼쳐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야구팬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응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동일선상에서 두고 정책을 펴는 안 된다

오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은 자체재원 중심 세입체계, 비수도권은 이전재원(국비 지원) 중심 세입체계를 갖는 '차등적 맞춤형 분권'을 추진하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률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세 대 지방세 7:3 추진'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중심으로 한 재정분권이 추진 중이지만,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이 오 책임연구원이 주장이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지난 2006년 내국세 수입의 19.24%로 결정된 뒤 14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올해 수능 12월 3일 ... 시험실 인원 24명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2월 3일로 확정됐다.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며 문항 유형과 배점 등 시험 형식, EBS 수능 교재·강의와의 연계 등을 지난해와 같다. <관련기사 6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4일자로 공고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9월 3일~18일까지 12일간이다.

국어영역은 ▲화법과 작문 ▲언어(언어와 매체) 과목 중 언어) ▲독서 ▲문학에서 출제된다. 수학 가형 출제범위는 ▲수학 I ▲미적분 ▲확률과 통계이고, 수학 나형 출제범위는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기존과 같이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들 두 영역은 성적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이고, 나머지는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공된다. 평가원은 2021학년도 수능 난이도와 관련,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코로나 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시험실 당 수험생 수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집중호우 피해 대비 지나치다 싶게 사전조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관련, "지나치다 싶게 정도의 예방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주재한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태풍의 영향까지 받으며 내일까지 최대 500mm의 물폭탄이 예상된다고 하니 피해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매우 걱정이 크다. 막바지 장마 대응에 더욱 긴장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명피해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며 "조그만 우레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제 어디서 지반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각별히 대비해달라"면서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조과정에서 희생된 소방대원을 비롯해 불의의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당권주자 인터뷰 - 박주민 후보 >3면

책임고 건너가기 - 첫번째 북독 >16면

브룩스·나지완 KIA 전반기 MVP >18면



브룩스 나지완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문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20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4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5.2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35g/km) · A 250 4MATIC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15kg, 자동7단, 복합연비: 11.6km/ℓ (도심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48g/km) · C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5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5km/ℓ(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 15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